

올해 전세계 LNG선 발주량 사상최대 전망

국내 조선사, 2년 연속 수주 1위 기대

선가 오름세도 지속...수익성 개선에 호재 될 듯

올해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 규모가 100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LNG선 수요 증가로 1년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선가 흐름과 함께 국내 조선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LNG선 발주량은 100척 안팎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카타르 등 글로벌 석유기업들의 늘어나는 LNG 수요에 맞춰 운반선을 발주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 운반선/ 제공 = 대우조선해양

우선 당장 이달부터 시작해 올여름까지 대형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모잠비크 LNG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미국 애너다코페트롤리엄은 LNG선 16척을 2분기 내에 발주할 계획이다. 미국 엑손모빌의 모잠비크 로부마 LNG프로젝트에 투입되는 LNG선 15척 발주도 7월 예정이어서 올 여름에만 30척 이상의 LNG선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북극해 야말 프로젝트 관련 쇠빙LNG운반선 10~15척 가량도 2분기 내 발주가 예상된다. 최대 60척에 달하는 카타르 LNG선 발주도 다가오고 있다. 연내에 발주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QP)은 최근 수 주 내에 조선사들을 대규모 LNG선 발주를 위한 입찰에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LNG선 발주는 모잠비크·러시아·카타르 물량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조선·해운 전문 매체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LNG 수입량을 2030년까지 늘릴 계획인 가운데 LNG선 수요도 8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전 세계 LNG선 발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국내 조선업계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전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76척 중 66척을 수주했다.

지난 1분기 조선 3사는 전세계에서 발주된 LNG운반선 13척 중 11척을 따냈다.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은 7척을 수주했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각각 3척, 1척을 기록했다. 2분기부터 예상되는

관련 뉴스 & 데이터

- 현대중공업, 美조선업계 지원사격 (2019.4.3., 에너지경제)
- 강주명 국제가스연맹(IGU) 회장, "역할 늘어나는 LNG, 글로벌 수요시장 커질 것" (2019.4.3., 에너지경제)
- 대우조선해양, LNG 화물창 '솔리더스' 기술력 인증...상용화 초읽기 (2019.4.8., 에너지경제)
- 중국 국영 선박회사, 세계 최대 LNG선 수주...한국에 도전장 (2019.4.3., 한국무역신문)

LNG선 발주를 기대하면 지난해 7년만에 전세계 선박 발주량 세계 1위를 탈환한 국내 조선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NG선 발주가 증가하면서 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7만4000㎥급 기준 LNG선 신조선가는 지난해 2월 1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는 1억9000만원대에 달한다. 선가 인상으로 조선업 활성화는 물론 각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국내 조선사가 현재 LNG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수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4.9.,아시아투데이)



▲올해 예상되는 LNG운반선 발주/ 제공 = 이베스트투자증권